

광주 '폴리 전철' 달린다 ▶2

남도해양관광열차 타 보니 ▶7

나홀로 떠나는 힐링여행 ▶1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http://kwangju.co.kr)

제19572호 1판 2013년 9월 12일 목요일 (음력 8월 8일)



쏟아지는 추석택배 '바쁘다 바빠'

추석을 1주일 앞둔 11일 광주시 광산구 우편집중국 직원들이 밀려드는 택배 물량을 처리하느라 바쁘게 일손을 놀리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 우체국에서는 직원들이 총동원돼 하루 평균 32만여개의 택배 물품과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김진기자 jeans@kwangju.co.kr

## 교육계 비정규직 홍역

영어강사 등 교육부 일자리 시책이 양산

광주시교육청 6년간 3배, 전남 2배 급증

수업 質 떨어지고 임금격차 갈등 되풀이

영어기간교사·교과교실제 영어 시간강사·수준별이동수업 영어인턴 교사·영어회화전문강사·원어민영어 보조교사·영어센터 전임강사...

일선 학교에서 활동 중인 영어 교사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비정규직으로 영어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강단에 섰는지, 쳐우는 어떤지에 대해서는 교육청 업무담당자마저도 잘 알지 못할 정도다.

11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비정규직이 급속히 양산되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등 교육계가 흥역을 끊고 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최근 6

477명(광주 134, 전남 343) 늘어났다. 초등돌봄교실 사업에 453명(광주 195명, 전남 258명),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439명(광주 125명, 전남 314명), 스포츠강사 1017명(광주 435명, 전남 582명) 등으로 이들 4개 직종에 서만 2400명에 달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과학전문강사 도입을 추진했다가 각 교육청의 반발로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각종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계약직 수학강사가 기말고사 수학문제를 일부 학생들에게 유출해 재시험을 치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육계는 비정규직의 대규모 양산은 교육부의 정책사업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어회화강사, 초등돌봄교실강사, 위(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스포츠강사 등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영어회화교육을 강화한다'며 도입한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인해 광주·전남의 비정규직은 따른 갈등도 일고 있다. 비정규직종

년 사이에 비정규직(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2007년 2523명이던 비정규직은 2010년 3847명, 2011년 7093명, 2012년 8045명으로 늘었다가 올해 7699명으로 감소했다. 전남도교육청 비정규직도 8031명으로 지난 2007년 4542명에서 2배가량 증가했다.

교육계는 비정규직의 대규모 양산은 교육부의 정책사업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어회화강사, 초등돌봄교실강사, 위(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스포츠강사 등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에 따른 갈등도 일고 있다. 비정규직종

■ 광주·전남 교육청 비정규직 추이



## 개성공단 16일부터 재가동

5개월만에 완전 정상화…일일 상시통행·입주기업 을 세금면제 등 합의

남북은 오는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11일 합의했다. 남북은 10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 발생한 개성공단 사태는 5개월여만에 완전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추석 전인 16일부터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시운전을 통해 재가동 절차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기업 피해보상 차원에서 입

주 기업들이 북측에 납부하는 2013년도 분 세금을 면제하고 2012년도 귀속분 세금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 했다. 또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는 종양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양측은 특히 올해 안에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시행하며 개성공단에서의 인터넷·이동전화 통신 제공을 위한 실무적 문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카드를 이용하는 RFID 방식이 도입되면

사흘 전에 통보하고서 출입경 시간을 꼭 맞춰야 했던 현행방식이 바뀐다.

남북은 RFID 도입 이전에도 당일 출입계획자의 당일 통행 보장문제를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에서 계속 협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남북은 다음달 중에 개성공단에서 남측 지역의 외국기업과 외국 상공인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

정부는 "재가동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취업자 느는데 고용의 質은 뚝 떨어졌다

광주·전남 지역의 취업자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수가 크게 늘어난 등 고용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광주·전남지역 고용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의 8월 취업자는 70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8% 증가했고, 고용률은 56.8%로 0.6%p 상승했다.

광주시의 올해 월별 취업자 증가율은 지난해 동기대비 3월 2.3%, 4월 2.8% 5월 3.3% 6월 2.9% 7월 3.4% 등 평균 3%대를 기록했다. 이는 특·광역시 평균 증가율인 1%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광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가 좋지 않다. 8월 광주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6만3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1% 감소한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2만1000명

으로 21.3%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 감소율(3.2%)과 증가율(12.4%)에 비해 각각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간제 근무 등 노동 행태의 변화에 따른 일반적인 추세이지만 노동의 질과 관련 전국의 상황과 대비했을 때 좋은 현상은 아니다"

며 "기업이나 관련 기관이 고용 안정을 담보한 일자리를 충분히 늘리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역의 8월 취업자는 92만 2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보다 0.4% 증가했으며 이 중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2만3000명으로 30.4%나 대폭 늘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201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 1차모집】  
원서접수: 9월 4일(수)~13일(금)  
입학문의 062-605-1114  
광신 대 학 교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고농축 수분으로 힘있게 살아나는 수분피부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EX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은 작습니다. 605m 깊은 바다가 응축하고 응축하여 만든 심층수를 그대로 담아 낸 수분 앰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지 않아도 피부가 아무리 건조해도 촉촉함이 힘있게 살아납니다.

이제 작지만 강한 바다 수분 앰플을 만나보세요.

LIRIKOS



촉촉한 5ml의 바다

지구의 70%나 차지하는, 그러나 쉽게 다가갈 수 없기에 더욱 신비로운 바다 – 그 속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모두 어렵다는 이유로 유키만을 주목할 때 리리코스는 끊임없이 바닷속 새로운 발견을 향해 도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양 심층수에서 수분의 비밀을 찾았습니다. 유해물질이 살기 어려운 온도 2°C의 순수한 생명력, 수백년간 다른 해수와는 거의 섞이지 않은 고유수의 생명력, 그리고 605m 바닥속 높은 압력에 응축되고 응축된 진하고 강한 생명력까지 – 리리코스는 이런 순수한 심층수를 5ml 작은 앰플에 담았습니다.



리리코스는 뷰레이터 및 주요 백화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문의: (주)아모레파시픽 고객 상담실 080-023-5454 www.lirikos.co.kr



LIRIKOS  
MARINE  
HYDRO AMPOULE EX  
5 ML